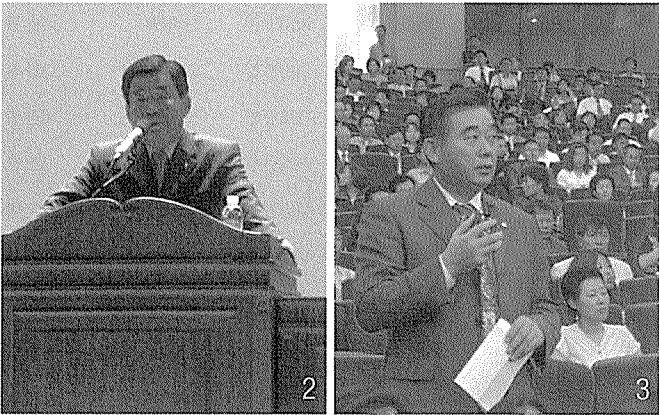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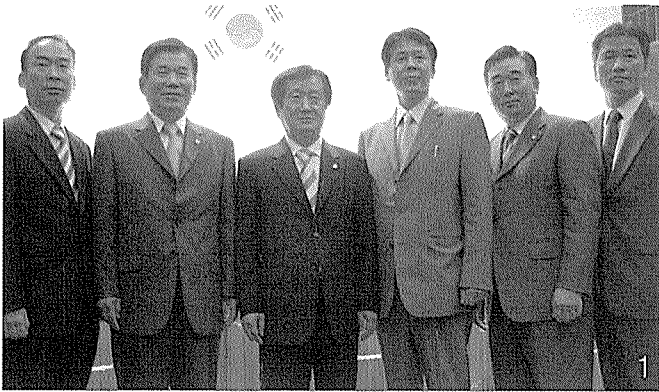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청 간담회 개최

한국학생제과경연대회 교육부총리상 표창 결정

지난 9월 2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에서 주관한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오는 10월에 개최하는 제12회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 행사 기간 중에 대회를 갖는 제1회 한국학생제과경연대회 수상자에게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 표창을 건의해 뜻깊은 성과를 이뤄냈다. 글과 사진 박소희 기자



1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청 간담회에는 전국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회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2 간담회 연설을 하는 김진표 장관. 3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한국학생제과경연대회에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표창을 건의해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4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사진 왼쪽에서 세번째)을 비롯한 경제단체 협회장을 지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총회장상을 수상했다.



지난 9월 2일 서초구 방배동 소재 서울특별시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한 김진표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초청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장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문상주 총회장과 오호석 회장을 비롯한 직능경제인단체 회장단 300여 명과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 김봉수 기획분과위원장, 양성규 강동·송파 지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진표 장관은 “최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서비스업에 대한 평가가 미국 228, 일본 200에 비해 한국은 100으로 서비스업의 평가 수준이 현저히 낮다”고 말하고 “서비스업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억의 예산 내에서 해외 연수를 통한 교육, 외국 선진 기술 도입 등 고급 지식 기반을 키워 서비스업을 육성시켜겠다”고 밝혔다. 또한 “먼저 대학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핵심역량화 사업을 위해 대학을 특성화 시키고 서비스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구체화하고 평생학습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며 “서비스업의 수준이 올라가면 실질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나고 경쟁력을 높여준다”고 교육과 서비스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간담회에 이어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현안사항을 건의하는 자리에서 김영모 회장은 “(사)대한제과협회에서 제과기술을 배우고 있는 학원, 대학생 등 학생들을 위한 학생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술에 정진하는 학생들의 사기를 높이고 진정한 제과인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을 도입해주시기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김진표 장관은 “최근 인문계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술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중이다.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기술을 익히기 위한 학생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제12회 서울국제빵·과자경진대회 행사 기간인 10월 14일과 15일에 열리는 제1회 한국학생제과경연대회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교육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표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이날 (사)대한제과협회 김영모 회장은 평소 우수한 협회를 운영하는 단체에 주어지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총회장상을 수여받았다. ☞